



INDEX

1면 인사말 - 이인숙 간호대 학장

2면 간호대학 소식

▷연구실 탐방

wellness 건강정보센터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2011년 간호대 우수교육상

▷교수동정

최명애 교수 - 한림원 정회원 선정

박현애 교수 -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 선출

이인숙 교수 - 지역사회간호학회장 선출

▷Simulation Center

7면 학교행사

▷국제교류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세미나

2011년도 오이타, 메릴랜드 대학과의 국제

교류

단기방문

▷간호문화사업

▷2011년도 졸업 30,40,50주년 기념 모교방

문행사

▷제3회 멘토-멘티 결연식

▷2012년 제 5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계 간호대학 교수 워크숍

동문탐방

▷고문희 초당대 부총장님

▷오세영 서울여자간호대학 총장님

▷임숙빈 대한간호과학회 차기 회장님

18면 학생활동 | 학부

▷2012년도 간호대 학생회 발족

▷2011년 간호대 진로캠프 성료

▷학생활동

08 구보연 · WHO 인턴

07 김현진 · 코이카의 꿈

▷장학금 기탁

▷동아리탐방

▷2012년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

발전기금

21면 학생활동 | 대학원

▷나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유학생활

▷한국갤럽 박사학위 논문상 우수상 수상

- 장선주

인사말

2012년,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법인화를 통해 확보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는 미래인재의 육성, 세계수준의 연구, 글로벌 리더십, 사회속의 서울대 구현 등 구체화된 활동을 통해 세계 10위권 내의 대학으로 발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전에 없는 도전과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은 한국과 세계 간호계를 리드하는 대학,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뮬레이션 실습실 완성과 교육실시, 에디오피아에서 실시하는 국제지원활동, 민간기업 KOLON과 함께하는 건강정보 개발사업, 평창 Wellness Care 연구소운영 기반마련, 문화의 그릇안에 간호의 가치를 담아내는 간호문화컨텐츠 개발, 간호대학의 학술지인 "간호학의 지평"을 SSCI, SCI-E의 등재학술지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 등, 연구와 R&D 사업으로 간호대학에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이 오래 전부터 기해왔고 사회적 수요가 큰 노인요양센터설립을 위한 노력, 통일을 대비한 간호학제의 검토, 간호를 통한 일차보건의료의 전개 등의 연구를 통한 준비,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학문적 융통성이 발휘하는 전문적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학부학생들의 실습교육, 변경된 대학원생 논문자격시험의 정착, 석박 통합과정 시작,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정 정비 등이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의 공동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층 교육의 질적 내실화가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들은 서울대학교의 2012년 역사 속에 발전하는 간호대학의 모습으로 부각될 것이며, 간호계를 리드하는 대학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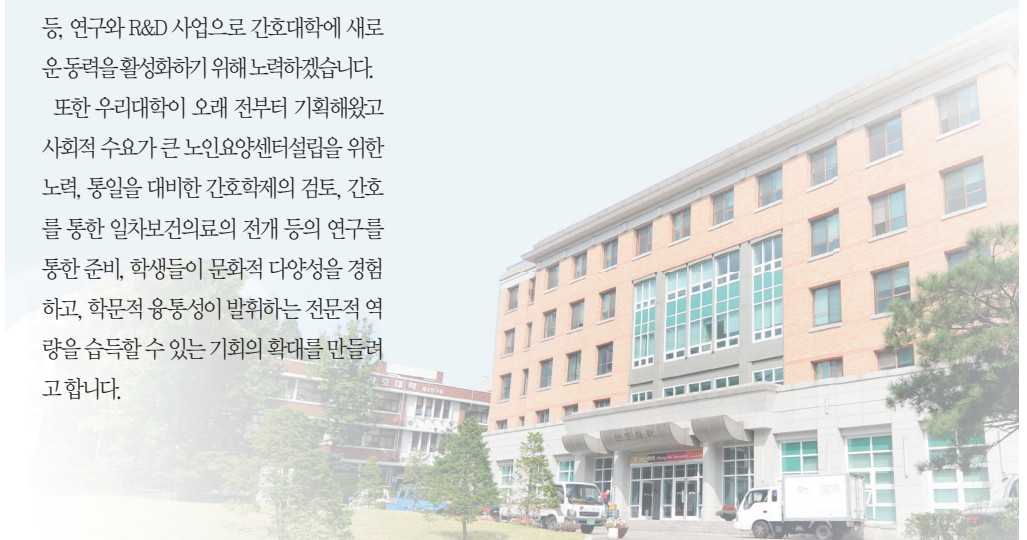
하여 교수와 학생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라는 조직문화 속에서 행복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년의 상징인 흑룡은 권위와 풍요와 화합을 의미합니다.

2012년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화합된 힘이 풍요와 권위로 드러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2년 3월

간호대학장 이인숙



간호대학 소식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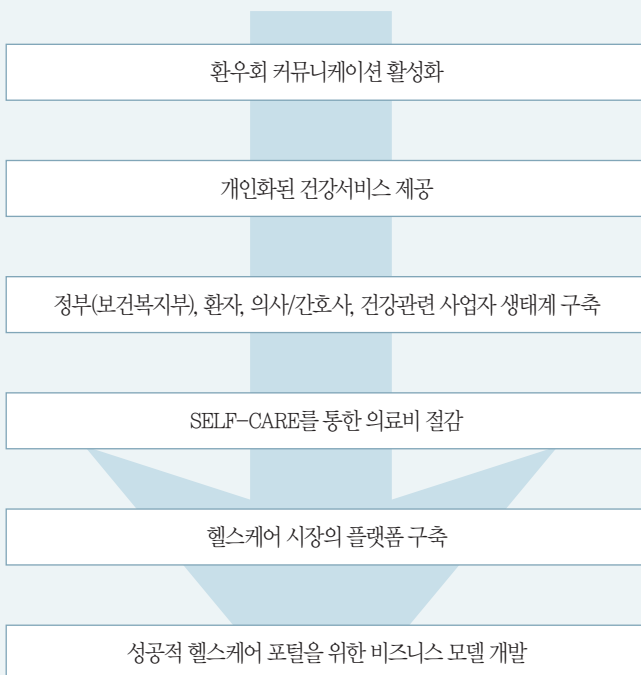
연구실 탐방

wellness 건강정보센터 - SNUKO 웰니스 건강정보센터 개소 및 연구 프로젝트 계약체결

간호대학 이인숙 학장은 지난 2011년 12월 1일자로 주식회사 코오롱베니트로부터 “소비자건강정보제공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질병예방 및 평생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정보 제공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건강정보 산업 관련자료 및 지식이 부족하며, 건강컨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의 적극적인 활용이 매우 필요하다. 코오롱베니트 주식회사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요구를 인지하고 그룹 차원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건강관리 사업에 새로이 진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코오롱 그룹이 건강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아 새로이 “해빗(HAVIT)”이라는 브랜드를 발족시켰다. “KOLON HEALTH”는 LIFE STYLE INNOVATOR로서 모두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정보, 생활건강, 운동정보, 미용, 식생활정보 등의 다양한 건강정보를 통합해서 언제 어디서나 SELF-CARE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대 건강 포털을 구축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해빗의 추진목표로는



코오롱베니트는 브랜드스토리로서 “건강을 위한 행복 습관, 헬스케어 서비스 HAVIT은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개념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하루 한번 해빗과 함께 하는 건강한 습관으로 빛나는 인생을 누리세요”를 강조하고 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러한 장기간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로서의 전문가 집단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코오롱베니트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 상호협력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장기간의 단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년차의 연구개발비는 3억 5천만원으로서, 일차적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1단계로 기초적인 건강컨텐츠 개발에 착수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소비자건강정보 선행사례 수집 및 분석, 소비자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강정보소비자 영역별 요구도 및 활용도 조사연구, 소비자건강정보 컨텐츠 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간호대학은 “SNUKO 웰니스 건강정보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는 Seoul National University와 Kolon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앞으로 간호대학이 웰니스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을 담은 것이다. 연구 프로젝트는 이인숙 학장을 연구책임자로, 김정은 교수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그리고 지역사회간호학과 간호정보학 전공을 하는 석박사 과정생 및 학부생 등 9명의 연구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소비자중심적인 컨텐츠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질병을 주로 개발하는 팀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개발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애주기(Life Cycle)별, 건강연속선(Health Continuum)별 건강정보 요구를 분석하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고품질의 건강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른 어느 건강정보 제공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없는 간호학적인 전문지식을 가미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최고품질의 고유한 건강정보가 양산되기를 프로젝트 팀은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호사들도 대상자들에게 건강교육을 제공하고자 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제공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간호대학 소식 02

간호과학 연구소 소식

1. 정기학술대회 개최



2011년 9월 23일(금)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재호교수(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영미박사(서울대학교 압병원 간호팀장), 명선정교수(서울의대), 오향순 수간호사(서울대학교병원), 김현아팀장(서울삼성병원 진료개선팀), 이순교 수간호사(서울아산병원 PI팀), 엄호기교수(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실장), 김재선박사(미래병원경영컨설팅 대표이사), 신현호변호사(법무법인 해울),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등 다학제적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연구결과와 전망, 방법을 듣고 토론하였다. 전국의 병원 간호사, 교수, 대학원생 등 320 여명이 참석하여 환자안전의 개선 전략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2. 다학제 심포지엄 : 빈곤계층 건강연구의 다학제적 접근

2011년 11월 15일(화)에 '빈곤계층 건강연구의 다학제적 접근'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윤순영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방경숙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가 '빈곤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조기간호 중재', 여성연교수(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가 '미국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형태와 아동발달', 구인회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 이상문교수(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정재원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이복임교수(울산대학교 간호학과), 강신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참여하였다.

3. 제7회 겨울방학특강 진행

올해 겨울방학에 연구소 주최 SPSS, 엑셀 특강이 열렸다. 통계 특강은 최진수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강사로 하여 '기초 SPSS 통계'를 주제로 12월 19, 20일 오전 9시~4시 연구동 3층 컴퓨터실에서 열렸고, 엑셀 특강은 최철 엑셀MVP 강사를 초빙하여 '연구에 필요한 기초 엑셀 강의 및 실습'을 주제로 2012년 2월 17일(금)에 연구동 컴퓨터실에서 열렸다.

4. 학술지 "간호학의 지평" 발간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연회 발행하던 학술지 "간호학의 지평(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을 2011년부터 6월, 12월, 연2회 발행하였다.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전액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인 투고규정 및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rins.snu.ac.kr>)를 참고하기 바란다.

5. 2012년 수요학술세미나 안내

일자	주제	연자(소속)
3월 7일	파평 윤씨 모자 미이라의 주인공에 대하여 :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정호섭 교수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4월 18일	기능적 노화를 위한 최근 연구 동향	박정수 교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4월 25일	웰니스를 위한 신체활동의 역할	전태원 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5월 2일	식품의 암예방 기능성	주지형 교수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5월 16일	영조의 건강관리	조용희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6. 국제학술대회 안내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평창 그린바이오 멀티캠퍼스 개관에 맞추어 '웰니스케어 센터의 현재와 미래(Academic Nurse-Managed Wellness Centers : Integrating Education, Research, and Health Service)'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 제목 : Academic Nurse-Managed Wellness Centers : Integrating Education, Research, and Health Service
- 날짜 : 2012년 5월 31일 (목)
- 장소 : 간호대학 연구동강당



간호대학 소식 03

2011년 간호대 우수교육상 최희승 교수 인터뷰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3월이지만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마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듯한 봄이 시작되고 있다. 2012년 간호대학 학생회 장진주, 한효정 학생이 새 학기를 앞두고 2011년 간호대학 우수교육상을 수상한 최희승 교수와 만나 교수님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2011년도 우수교육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강의의 어떤 특별한 점이 이 상을 받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희승 : 상을 주셔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오랫동안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랍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뭘 했다고 교수라면 가장 받고 싶어하는 티칭 어워드(Teaching Award)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앞으로 열심히 가르치라는 뜻으로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한테 고맙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점 때문에 받았다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너무나 수업을 즐겼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살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 행복해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Q2. '인간과 건강' 수업이 영어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에 많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잘 해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며, 소통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최희승 : 영어강의를 하면서 아직도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깐 제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교수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영어강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고통을 줄이고 즐겁게 할 수 있을가에 대해 항상 고민 중입니다.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은 학생들한테 영어 강의가 영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어수업에서는 문법을 보는 것도, 발음이 좋은지를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영어 수업이 영어라는 도구(tool)를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영어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 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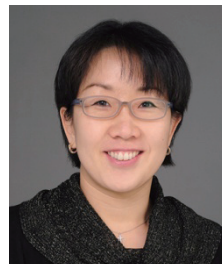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못 알아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면 학생들이 용기가 사라집니다. 제 유학생활에서 나온 경험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든, 단어가 어떻든, 콩글리쉬는 콩글리쉬대로 알아 들으면서 영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영어가 스피킹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거나 수려한 문장을 쓰는 스피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어, 쉬운 단어, broken-English, 손짓, 발짓 등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표현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말입니다. 영어가 목적이 아닌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과 서로 소통이 자연스러워 지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강의를 아무리 했어도 외국학생과 한국학생에게 맞는 영어수업은 굉장히 많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에게 맞는 영어강의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영어강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고통을 주기 위함은 아니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비디오프젠프트 혹은 말이나 그림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영어강의의 소통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언제든 많이 하게 했고요, 학생들이 언제든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바라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

Choi Hee Sueng Professor Interview



있으면 하는 점입니다. 편안한 사람들, 편안한 옷을 찾으며 편안한 존에서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그 존에서 벗어나게 되는 직업입니다. 그것의 처음 훈련이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고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텐데, 영어강의를 듣는 순간 편안한 존에서 벗어나게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challenge를 주며 벗어날 수 있도록 끌어 내주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comfort zone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창피하더라도 많이 질문해야 빨리 많이 배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영어를 말하고 나면 굵직지 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자유로워져야 빨리 영어에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자 만났을 때 간호사가 영어 때문에 불안해지면 환자도 불안해집니다. 제가 수업하는 그 강의실을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Q3. 교수님만의 특별한 교육방침이나 학생을 대하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최희승: 거창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열려있는 교수님으로 있으려고 해요.

간호는 사람냄새 나는 과학입니다. 간호는 감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하는 과학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과학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과학이 간호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그러니까 남을 돌볼 줄도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해 확실히 알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사람냄새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며 학생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Q4. 교수로서 앞으로의 목표나 간호인으로서 새로운 꿈이 있으신가요?

최희승: 저는 고등학교 봉사활동을 고아원으로 갔었습니다. 치아관리를 자기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치아가 너무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련과목을 하면서 응급할 때는 간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 간호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의문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잘 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Q5. 학부생이 꼭 했으면 하는 경험이나 공부나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희승: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과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있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면서 생활하길 바랍니다.

1학년때에는 새로운 대학생활을 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속상해하고, 2학년 때는 관악캠퍼스와는 다른 연건캠퍼스에서 새로운 과목을 배우고, 3학년때는 새로운 실습을 하게 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응을 하는 것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 가다 보면 꼭 파인 웅덩이에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웅덩이를 보고 ‘왜 웅덩이에 넘어졌을까? 웅덩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웅덩이를 밟로 차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The pitfalls in your path are places you can plant seeds” 이 말처럼 ‘웅덩이가 씨를 뿌리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진 곳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넘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은 그 웅덩이에서 나무가 자라나도록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웅덩이가 파여있을 때마다 넘어져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번에는 무슨 씨를 뿌리라고 생긴 구멍일까 하고 자신감 있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interviewer 11 장진주, 11 한효정

교수 동정



최명애 교수 - 한림원 정회원 선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최명애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되었다.

최명애 교수는 현저한 업적으로 간호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1년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입 정회원 회원증 수여식에서 신입 정회원 회원증을 수여받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과 기술에 학문적 우월성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회원으로 엄선하여 이들의 부문별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진흥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한림원의 조직은 정책학부, 이학부, 공학부, 농수산학부, 의학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학은 의학학부에 속해 있다. 한림원의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 현저한 업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정수 500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우월성을 인정받는 석학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회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한림원의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최명애 교수가 간호학 분야에서 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정된 것은 간호학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박현애 교수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

(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 선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가 2011년 10월 15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미국간호학술원(American Academy of Nursing) 제3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박현애 교수의 학술원 회원 추대는 국내에서는 3번째이며, 2011년 새롭게 제정된 International 회원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박현애 교수는 간호정보학 및 보건의료정보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 교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국제활동의 업적을 인정받아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미국간호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간호학 분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 중 하나로, 간호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연구성과, 교육업적, 국제활동 등을 바탕으로 현재 학술원 회원 2명의 추천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대된다. 미국간호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면 FAAN(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박현애 교수는 1980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보건통계/보건정보)를 취득하고 1992년부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인숙 교수 - 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 선출

지역사회간호학회는 2011년 12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새 회장에 이인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이 취임했으며, 부회장(차기회장)으로 김정순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장이 선출됐다.

학회는 2015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지역사회간호학연구학술대회(ICCHNR) 및 한·일 국제교류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입교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회원 교육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역사회간호학회지'의 SCI 및 SSCI 등재 준비에 힘을 쏟기로 하는 한편,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한·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간호대학 소식 0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층 Simulation Center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신관 3층에 간호 시뮬레이션 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뮬레이션 센터는 기존의 기본간호학 실습실이 있던 장소에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어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한 일곱 개의 실습실로 구현할 예정이다. 각각의 실습실은 외과병동, 내과병동, 어린이 병원 병동, 가족 분만실, 간호 처치실, 수술장, 중환자실 등의 환경과 유사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각각의 실습실에서 간호 학부생 및 전문 간호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 술기 및 태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센터 옆에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고, 화상 강의 및 집단별 교육이 가능한 첨단 기기를 갖춘 최고 강의실이 갖추어져 다양한 교육 방법을 학생 교육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2011년 9월 간호대학 학생들의 기본간호수기 자신감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기본간호수기 자가연습을 할 수 있는 Skill' s lab을 신관 3층 공간(엘레베이터 옆)에 마련하였다. Skill' s lab에는 단순도뇨, 정체도뇨, 관장, 기관절개관 흡인, IV 삽입, 근육주사 투여 등의 기본간호수기 연습을 위한 모형과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투약준비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용 Ampoule, Vial이 준비되어있다. 또한 Virtual IV simulator는 정맥로 확보를 실습하기 위한 종합적인 쌍방향 자가학습 시스템으로 3D 그래픽이 시각적 현실성을 제공하고 최신식 햅틱 장치는 학생으로 하여금 실제와 같은 정교한 느낌을 경험하게끔 한다. 이 외에도 InBody를 사용한 체지방 측정이 가능하다. 간호 시뮬레이션 센터는 실제 임상보다 위험성이 적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 전문지식과 임상수기를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임상에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판단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등 실습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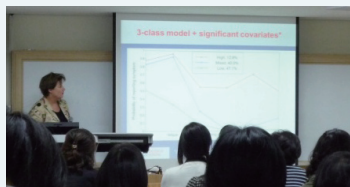


학교행사 01

국제교류

1.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세미나

제목: "Ways to Build a Program of Research"
일시: 2011년 10월 26일 (수) 14:00~17:00
장소: 간호대학 연구동 104호



Lauretta T. Quinn PhD, R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Dr. Quinn's presentation will review the critical role that nursing can play in clinical diabetes research. The presentation will be based on her own experience in clinical diabetes research over the last two decades.



Colleen Corte PhD, R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Dr. Corte's program of research is focused on identity impairments as a cognitive vulnerability for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he will present the findings of several studies and discuss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Lorna Finnegan PhD, APN, CNP,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Dr. Finnegan will discuss her current NIH-funded R01 study and how her program of research has evolved from her dissertation and preliminary studies.

사진.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세미나

2. 2011년도 오이타, 메릴랜드 대학과의 국제교류

▶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하계 단기 연수



채선미 교수 및 강경화(박사과정), 김향(석사과정), 장선미(석사과정), 박혜영(석사과정), 박정희(석사과정) 대학원생 5명은 2011년 7월 17일 ~ 7월 24일까지 1주일간 일본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Yufuin Kourseinenkin Hospital, Oita Prefectural Hospital, Shono Maternity Clinic, Oita Nursing Association, Oita Western Public Health Center/ Oita Public Health Center, Hyakkaen Nursing Home 등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갖는 등 일본 간호 및 의료체계를 공부하고, 일본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학생들의 본교 방문



Atsushi Inagaki 교수 및 대학원생 1명, 학부생 6명은 2011년 8월 21일~ 28일까지 1주일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하계 단기 연수를 위해 방문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간호대학(연건 캠퍼스), 박물관, 시뮬레이션 랩 등을 체험하였고,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서울대학교 강남센터, 아산병원, Green Hill Nursing Home 및 송파 보건소 등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갖는 등 한국 간호 및 의료체계를 공부하고, 동대문, 창덕궁 등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University of Maryland 하계 단기 연수



노아영(09), 이성현(09), 최지선(09), 황지원(10) 총 4명의 학생은 2011년 7월 5일~7월 21일까지 약 3주간 미국 동부의 Baltimore, Maryland에 위치한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Nursing으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미국 간호사의 실무, 간호 교육 체험,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간호에 대한 체험 등을 통한 국제적 안목 향상, 전반적인 미국 문화 체험 등을 목적으로 Lorient Health Center, The Baltimore VA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Nursing의 clin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labs,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System, Howard County General Hospital 등을 견학하였다.

3. 단기방문

▶ Mahidol University (Thailand)의 본교 방문



- 일시 : 2011년 7월 15일 (금)
- 방문자 : 태국 Mahidol University의 간호학 교수 5명
- 내용 : 간호대학 학부/대학원생 과정에 대한 소개 및 본교 간호대학 견학

▶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Dr. Fiona Bogossian (Research Director) 방문

- 일시 : 2011년 9월 27일 (화) 10:00~12:00시
- 내용 : 학장단과의 면담 및 간호대학 시설 견학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교수 3인 방문

- 일시 : 2011년 10월 26일 (수) 10:00~17:00시
- 내용 : 학장단 면담, 간호대학 및 서울대학교 병원 견학, 특별 세미나 강연 등

▶ Phra Pokklao College of Nursing (Thailand)의 본교 방문



- 일시 : 2011년 9월 29일 (목) 13:00~16:00시
- 방문인원 : 간호대학 교수 및 직원 32명
- 프로그램 : 본교 Simulation lab, OSCE room 등의 시설 견학 및 간호대학 교과과정과 평가, 간호연구계획과 실행, 학생활동과 조직 등을 주제로 강의 및 세미나 진행

▶ 중국 Guangdong Provincial Hospital of TCM의 본교 방문

-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14:00~16:00시
- 방문 : 수간호사 1명
- 프로그램 : 간호대학 시설 및 서울대병원 및 암병원 견학, 학과장 면담

▶ Bromarajonnai College of Nursing (Thailand)의 본교 방문



- 일시 : 2011년 11월 1일 (화) 09:00~12:00시
- 방문 인원 : 교직원 40명
- 내용 : 본교 간호대학 시설, 암병원, 의학박물관 견학, 교과과정 및 학생활동을 주제로 한 강연 및 세미나

학교행사 02

간호문화사업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가진 힘은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의 국력과 직결될 정도로 강렬하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도 문화 활동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또한 현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정신적인 만족을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며 개인의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이들의 감성코드에 맞는 문화적 전략이 중요하다. 문화예술이 구축한 독특한 감성코드는 사람들에게 편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된다.

문화예술(文化藝術)이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 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악예술 등 예술을 포함한 문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 간호대학의 간호문화사업은 2011년 10월 졸업 동문의 모교방문 행사에 맞추어서 준비된, 서울대 간호대학 발전계획 SNU NURSING, PROJECT 21'의 일환이었다. 간호학과 공연예술문화의 만남을 통해 간호학의 정신이 일반인에게 좀 더 편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소개되어 간호학 또는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 사업을 통해 간호학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새로운 차원의 간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그 기획 의도였다.

간호사들의 경험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의 줄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대본 위에 리듬과 멜로디와 춤이 어우러져서 서울대 간호대학의 창작 뮤지컬 '장밋빛 인생'이 완성되었다. 2011년 10월 13일 오후에 간호대학 강당에서 공연된 첫 작품 '장밋빛 인생'은 신규, 중견, 은퇴 즈음의 세 간호사의 모노로그를 노래와 춤으로 구성한 20분 분량의 퍼포먼스 쇼이다. 이 뮤지컬을 관람한 대부분의 동문들은 '간호를 뮤지컬에 접목한 것이 신선하고 인상적이고 활력 있었다'고 하면서, '간호의 의미와 가치를 친숙하게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 창작 뮤지컬은 2달 뒤인 12월 13일에 아산병원 수간호사 모임에서 재공연되었으며 유사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공연시간이 20여분밖에 되지 않아 아쉬웠으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부각되는 에피소드가 추가되기를 희망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즈음 이러한 공연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장밋빛 인생'을 build-up 할 수



[2011년 10월 동문 모교방문행사 때 공연된 '장밋빛 인생']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업문화예술사업 제안을 받아 간호사들을 위한 문화예술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예술동호회가 조직되었고 약 10여명의 간호사들이 이 문화예술참여 프로그램(Art for Nursing)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간호사들은 약 3개월 동안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기초로 뮤지컬 대본을 창작하고, 공연에 필요한 연기와 노래훈련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직접 참여하여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밋빛 인생-II'가 완성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작된 뮤지컬 장밋빛 인생-I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기존 20분 분량에서 50분짜리 작품으로 완성되어 2012년 2월 20일 서울대병원에서 공연되었다. 관객으로 참여한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에게는 힘을 주고, 간호학생들에게는 예비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작품은 3월 31일 중환자간호사회 총회에서 재공연 되었으며 간호사 신문에 소개되었다.



[2012년 2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재강의실 '장밋빛 인생-II' 공연]

1. 간호사 신문 [2012-03-27]

간호예술동호회 간호사들은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간호업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자긍심과 소명의식,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예술과 간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면에서 닮아있으므로 간호와 예술이 만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필자는 이 문화예술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간호문화사업은 간호 및 간호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간호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효과

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간호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은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공연 그 자체가 대중들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새로운 실천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더불어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참여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았다. 또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 활동이 행위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예술이 지닌 본연의 내연적 가치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4차례 공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향후 간호

문화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속적인 예술작품의 개발과 공연활동을 기획하기 위한 조직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참여층의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예술단체와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방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 직업세계 창작뮤지컬 '장밋빛 인생'
서울대 간호대학 간호문화사업 결실
간호사 신문 [2012-03-27 오후 1:21:09]

2. 간호사 신문 [2012-04-03]

간호사의 직업세계와 간호의 가치를 담은 창작뮤지컬 '장밋빛 인생-II'가 간호사들에 의해 탄생했다. 간호문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밋빛 인생-II'는 서울대 간호대학과 서울대병원 간호예술동호회, 창작뮤지컬 프로젝트팀 'Art for Nursing'이 공동기획한 작품이다. 뮤지컬은 은퇴를 앞둔 '오한길' 간호사가 신입간호사 '왕새별'과 중견간호사 '강인혜'를 마주하며 간호사로서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다. 서울대 간호대학 발전계획 'SNU NURSING, PROJECT 21'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작된 뮤지컬 '장밋빛 인생-I'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존 20분 분량에서 50분짜리

작품으로 완성됐다. 서울대병원 간호예술동호회 간호사들이 직접 스토리텔링 작업에 참여했으며, 연기까지 선보여 화제가 됐다. 첫 공연은 지난 2월 20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관객들은 "간호사들에게는 힘을 주고, 간호학생들에게는 예비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호문화사업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서 그 가치가 주목되고 있다. 간호사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기 때문에 간호의 참 모습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릴 수 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재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문화사업을 통해 간호 및 간호학에 대한 이



미지를 제고하고, 대중들에게 간호의 가치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서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위한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공연 그 자체로도 참 간호를 실천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간호신문

[2012-04-03 오후 1:02:06]

학교행사 03

2011년도 졸업 30,40,5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



지난 2011년 10월 13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졸업 30, 40, 5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개최되었다. 동문 30여명은 캠퍼스 투어를 하며 서울대학교 미술관 및 규장각, 간호학 박물관을 관람하였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3,59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였다. 동문들은 간호대학장 동창회장 초청 환영 오찬 시간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스승, 동문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간호대학 법인화 프로젝트 영상 및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였다. 30주년 동문들은 모교방문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 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 국내외 간호학의 최신 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학교행사 04

제3회 멘토-멘티 결연식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2011년 6월 14일 오후 5시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와 공동주관으로 제3회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간호전공자로서 최고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미 전문가의 자리에 있는 선배를 멘토로 결연하여 멘티인 학생의 진로설계에 조언과 지원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날 이인숙 간호대학 학장 및 동창회 임원 축하, 최윤영 인문대 학생부학장의 “효과적인 멘토링전략”을 위한 특강이 있었으며 작년 멘토와 멘티의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4학년 재학생의 축하공연과 리셉션이 이어지며 훈훈하게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0명의 멘토와 20명의 멘티가 결연식을 가졌으며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과 교수 및 학교 동문 선후배가 참석하여 이들을 축하하였다.



학교행사 05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2년 3월 2일 간호대학 12동 강당에서 제 5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 하기 전에 교내의 인사 및 선후배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숭례의식 행사이다.

이날 선서식에는 본교 정철영 학생처장,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강대희 의과대학장, 최순철 치의학대학원장, 최민호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신찬수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오석배 치의학대학원 연구부원장을 비롯하여 본교 교수, 많은 학부모와 동문선배들이 함께하여 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나이팅게일 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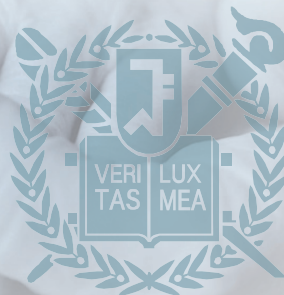
-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학교행사 06

동계 간호대학 교수 워크숍

2012년 2월 6일~7일 양일에 걸쳐 2012년 간호대학 교수 동계 워크숍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조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임시전형 및 학부, 대학원 교육과정 현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등문탐방 01

초당대학교 고문희 부총장님 인터뷰

Q1 : 초당대 부총장에 임명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미 임기가 몇 년 정도 지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임명 당시를 떠올리며 당선 소감한 마디 해주신다면?

작은 학교지만 간호학과 출신으로서 중앙보직에서 처장을 한 예는 있지만 부총장을 한 경우는 처음인거 같아요. 간호학과 출신이 경영이나 리더십과는 멀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처음엔 굉장히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관리거든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파악해가면서 학교를 경영하고 있어요.

2. 초당대에서 간호학과 교수를 역임해 오셨는데, 교수로만 계시실 때와 부총장직을 맡고 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신가요?

부총장을 맡게 되면서 강의는 하나 밖에 안 맡고 있어요. 경영이나 행정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보면서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데,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 새롭고 신선한 도전이었죠. 그런데 행정 일은 조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수업에 비해 절차가 정해져 있는 딱딱한 일이 많아서 수업 준비할 때는 화초를 가꾸듯이 '소소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 시간 강사를 할 때에는 '평생 시간 강사만 해도 좋으니, 학생들과 수업만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수업만 하진 못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인 두 가지 일을 모두 하면서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게 균형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3.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받으셨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자살예방에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살예방 협회가 2006년에 발족되어 자살예방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발족 당시부터 지금까지 6년 정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자살예방법이 통과되면서, 정책적으로도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 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하는 일이 사회복지, 심리, 정신간호 3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정신간호사들도 그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간호사들이 임상 등 일로 바쁘다보니 참여하기 어려워 사회에서는 잊혀질 수 있어서 '나라도 참여하자, 주춧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일차적인 임상에서 우리는 자살하려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고, 그만큼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이나 20대, 가장들, 연예인의 자살 등이 주로 이슈가 되지만 만성 질환자, 말기 질환자들의 자살율도 굉장히 높아요. 대신 우리가 그러한 일차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역량을 또 길러야 하겠죠. 상담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특히 '고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살상담실은 또 하나의 응급실이어서 자살상담실에서 돌보아야 되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생명의 경계에 놓여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치치해주어 생사의 경계선에서 생을 택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을 하는 거죠.

4.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통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하다 싶은 일들도, 사람들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정

신적으로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요. 예를 들어 형제간의 편에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내가 엄마에게 가치가 없는 아이야', '난 가치도 없는데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내가 없어지면 내 가치를 알아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은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존재론적인 회의가 들 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존재를 알아주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어느 한 사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렇기에 상담을 해주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히 서 있지 않으면 안락사 같은 문제에서, 우리도 쉽게 '저렇게 힘들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대학생들이 자살 예방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현재로서의 대학생들이 자살예방협회를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자살예방법이 통과되고, 정책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앞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들이 동년배인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학교 폭력 문제, 입시 문제, 대학 적응 문제 등 비슷한 눈높이에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작은 캠페인 참여 정도 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상담이나 교육 등 많은 부분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6. 현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으로도 재직 중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후배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Go Moon Hee Interview



‘우리가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한다’는 생각으로 정신간호 사회를 만들었어요. 전문 영역으로서 정신간호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전문성도 좀 더 확보하고, 학문적 깊이도 다져야 하고 또 실무 역량도 키워서 정책적으로 영향도 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정신간호사의 상황은 사실 많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환자나 우리의 특수한 분야에 대한 애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정신간호사들이 많아요. 그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정신간호사들의 활동을 알리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여러 환자들부터 임상 환자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한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전문가’, ‘가장 사랑 받는 전문가’가 정신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7. 정말로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비전이나 목표 혹은 신념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저는 특별한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력서를 내서 일 해 본 적도 없고,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면서 무슨 일을 해온 적도 없고. 하지만 연연이 되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저를 책임자라 생각하고 불러주신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항상 임해 왔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한 장의 벽돌로서 내 역할을 다하자’라는 거? 사실 거창하게 향후 계획이랄 것도 없고, 남은 기간에는 글을 쓰면서 많이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또 사소한 여행,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생활, 취미 생활인 승마, 그런 것들을 하며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그 외의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정신간호 영역에서는, 사실 정신간호사회 임직원들은 다들 봉사자들이예요.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일을 하기에는 다들 당장 살기도 바쁘니까. 제가 물러난 후에는 작게는 사무실 청소, 문서 정리와 크게는 정책 건의문을 써주는 작업까지, 아무런 직함 없이 보수 없이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8. 인터뷰를 같이 온 학생처럼 점점 더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간호 분야에 남학생들이 많아지면 앞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항상 간호는 여성의 분야로 분류되어 왔어요. 여성들이라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여성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 때문에 간호가 ‘돌봄’으로 끝나는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남자 간호학과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더욱 전문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또 앞으로 간호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제약회사, 보건용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곳에서 상경대 학생들에게 의학 용어라든지 약물 기전이라든지 간호학과 학생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을 재교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지 않아요. 또 병원경영 쪽이라든지, 물론 여성들이 그런 분야에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이 오면서 남성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도 간호학이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9.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간호대의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내가 무엇을 진정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에 대한 내면의 깊이는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행정 고시를 치겠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자신의 깊은 내면적 성찰을 통해 얻은 답이고,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그것이 간호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런 고민 후에 답을 내렸으면 해요. 하지만, 그런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현재에 충실해야 해요. 방향도 충실하게 하고, 지금 닦쳐 있는 공부도 충실하게 하고, 아주 치열하게 바둑까지. 간호대학은 사실 졸업 후에도 갈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듬어 주는 학문이다 보니 철학, 문학, 예술로 나아간 선배들도 있거든요. 언제든 지 열려 있는 곳이니 충분히 고민한 후에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는 치열하게, 현재에 충실하게 살구요.

또 하나는, ‘순수하고 높은 이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고, 매 순간에 선택할 일이 많아요. 그 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갖는 ‘가치’잖아요. ‘순수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끔 그 가치를 다시 돌아보며 되새기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죠. 다들 자신만의 ‘순수하고 높은 이상’을 갖고,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그 순수한 가치는 잊지 않고 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문탐방 02

서울여자간호대학 오세영 서울여자간호대학 총장님



Q1 : 이번에 제 4대 서울여자간호대학 총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당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1.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이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시고, 총장직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를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소신을 다할 것을 우리 대학, 학생과 교수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총장이 된 것의 뒷받침은 이끌어주고 지도해주신 훌륭한 동문 '멘토' 입니다.

첫 직장이었던 고려병원의 이송희 간호부장님, 현재는 세계기독교간호간호사회 이송희 회장님이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저를 인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이창우 감독님은 학교로 가도록 길을 놓아 주신 분이지요.

우리학교 내의 선·후배 동문 최철자 교수님, 오덕자 교수님, 최남희 교수님 또한 현재의 학교생활 발자취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희대의 강현숙 교수님과 임남영 교수님은 기본간호학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고, 뒤늦게 저에게 상아탑을 만들어주신 교수님 덕택입니다.

그리고 기본간호학 책을 집필하면서 맺어준 홍근표 교수님은 은사님이지만 박사공부를 주저한 저에게 '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예요' 라고 일깨워준 생명수 같은 멘토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의 '멘토' 자체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끔 도와주었어요. 우리 후배들에게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멘토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발전의 책임을 가지고 누가 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Q2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여자간호대학 기본간호학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한양대학교 간호학 박사 학위를 얻으신 후에 총장님이 되기까지의 교수 생활은 어떠셨나요?

A2. 기본간호학은 이곳 서울여자간호대학에 오면서 맡게 되었고, 기본간호를 하면서 건강 사정을 했어요. 병원에서 6년 근무하면서 건강 사정에 대하여 많이 접하게 되어 그것을 기반으로 건강 사정을 하고, 박사과정에서 보완대체를 하면서, "기본간호, 건강사정, 보완대체" 간호에서 정말 중요한 3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완대체 중 손 반사요법을 실험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삼성서울병원의 이정희 전이사님, 성영희 전 간호본부장님, 권인각 팀장님께서 환자에게 직접 연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박사학위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이를 토대로 본 대학 내에 심신간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근 10년간 개설 운영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간호에서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한때는 간호에서 보완대체가 간호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개발해서 적용하면 좋겠어요.

Q3 : 서울여자간호대학은 1954년 개교 이래 간호학과 1개 학과만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 지도 면에서 집중적이며, 그에 필요한 최적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여자간호대학의 위상을 어떻게 더 펼쳐 나갈 계획이신가요?

A3. 서울여자간호대학은 고 하두철 박사님께서 국민보건증진·향상을 염두에 두고 설립된 간호학만으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일찍이 앞으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간호에 집중해야겠다는 이

Oh Se Young Interview



님도 강화를 하시면서,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과정개설, 프로그램 진행, 노인간호요양센터 설립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노인간호 특성화 추진, 간호대학에서 유일하게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좋은 모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학장님과 총장님이 국제화에 (글로벌 리더 양성) 집중하셔서, 국립 타이베이 간호대학, Eastern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국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립 타이베이 간호대학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제가 시작을 했어요. 국립 타이베이 간호대학에 보완대체 교과과정이 있는 것을 알고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영국의 Winstern University, 호주, 하와이 등의 대학에도 단기 연수를 다녀오면서 국제화를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는 국제간호센터가 건립되어있어, NCLEX를 학생들, 졸업생, 교수, 일반인에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고, 성과도 좋습니다.

간호전문대학으로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학이라고 자부하며, 노인간호와 국제화의 특성화 대학으로 국내에서 최고의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간호국가고시 전국 수석인 오은경 학생, 298명 100%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서울여자간호대학의 이것만큼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A4. 작년에 학술대회도 참석했었는데, 우리 후배들이 창의성과 독특성을 가졌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부속병원이 없어 실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선·후배님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여러 큰 병원으로 실습을 보낼 수 있어서 그 분들의 중요함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이나 학식적으로는 뒤지다 하더라도 간호행위나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탁월해요. 여러 병원을 실습하면서 터득한 실력, 어디를 가든지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학교 출신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간호실무에 성실하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Q5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이후로, 아직까지 가슴에 남아 있는 학창시절의 일화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A5. 대학 신입생 때 의대 간호대 충청도 청우회에서 도봉산 등산 등의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친목을 쌓았고 봉사도 계속 하면서 끈끈한 동창의 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학창 생활을 유쾌하게 해주는 축진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동아리의 소소한 일들이 추억이 되고, 낭만이었어요. 자극이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고, 격려받고, 학교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종의 멘토였어요.

간호학에 대해 잠깐의 회의도 가졌지만 2학년부터 내 자신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Q6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문, 후배들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A6.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한 분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예요. 정복할 수 있는 노후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한발한발 걷다 보니까 정상에 도달되더라'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목적을 크게 높이 세우지 마세요. 지금 현실에 맞춰 하나하나 걷다 보면 더 높은 곳 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힘

이 생깁니다. 욕심 갖지 말고 목표를 멀리 두지 마세요.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서 한발에 목표를 두면서 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오늘 하루 공부 충실히 하자, 시험 잘 보자, 졸업 무사히 하자, 취업하자'

병원에서는 '오늘 우리 환자들에게 실수 없이 잘하자' 이런 현실에 충실한 것이 인정 받아서 지도와 격려로 교수로 추천을 해주셨고, 학교에 와서는 '열과 성을 다 해 가르쳐 주자' 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움의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에 만족했는데, 총장의 자리에서 더 큰 소임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사회에 크게 기여할 그릇입니다.

등산 할 때 정상을 보고 걷나요? 그때는 숲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 바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나무 뿌리가 있나, 돌이 있나 헤쳐가면서 걷죠. 당장의 디딜 곳을 보면서 올라가다 보면 숲도 낮아지고, 아래가 보이면서 내가 올라가야 할 곳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인생은 등산과 같아요. 부모님과 학교의 그늘 밑에 있다가, 그 그늘을 벗어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나 보면서 예측하고 스스로 개척하면서 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자기자신이 훌륭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 interviewer 11 장진주, 11 한효정

동문탐방 03

대한간호과학회 임숙빈 차기 회장님 인터뷰

Q1 : 한국간호과학회 차기 회장 당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1: 대한민국 간호계를 대표하는 큰 학술단체인 한국간호과학회의 차기 회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간호인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Q2 : 한국간호과학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2: 1970년도에 생긴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로 간호학자들의 학술 발표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학회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간호학자들이 학술대회나 연구활동을 통해 학문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최신 경향에 대한 정보도 얻지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대한간호학회지와 ANR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대한민국 간호학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단체예요.

Q3 : 한국간호과학회의 회원이 되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3: 한국간호과학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간호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여야 합니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별회원이나 명예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정회원은 회비를 내야 하고 학회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데 회비 납부에 따라 연회원이 될 수도 있고 평생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행정학회, 기본간호학회, 성인간호학회, 아동간호학회, 모성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기초간호자연과학회 8개의 큰 학회들이 회원 학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Q4 : 많은 회원님들 중에서 한국간호과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데에는 다른 회원님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텐데 교수님의 어

떠한 점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A4: 우선 정신간호학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저를 추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제가 지난 2년간 정신간호학회장을 했던 끝에 이어진 추천이었고 힘껏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선배님들 중에는 학회장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간호대학의 이런 리더십을 이어가라는 의미에서 동문들이 열심히 밀어주신 것 같아요.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한 몫 했겠지요.

Q5 : 차기 회장으로 맡게 되신 한국간호과학회의 이후의 방향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A5: 한국간호과학회의 역사는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모이고, 논의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교류의 자리도 마련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오셨죠. 이제 대한민국 간호계가 세계간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아요. 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한간호학회지와 영문학술지 Asian Nursing Research(ANR)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 간호대학에 계시는 최명애 교수님께서 학회장이실 때 이 두 개가 모두 SSCI급 학술지가 되어서 대한민국 간호계의 위상을 높였어요.

그러므로 제가 차기 회장이 되어 할 일은 간호학회의 시스템이나 성과, 그 주체가 되는 회원들의 연구학술활동을 살펴보고 간호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 풍토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학술지를 더욱 영향력 높은 학술지가 되도록 발전시키고, 학술교류에 회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또 회원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발전이라는 것은 앞

의 것을 기반으로 서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이어온 발전을 에너지 삼아 더 큰 발자국을 떼어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 간호 연구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기 까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는데 힘을 쏟고 싶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 간호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지면 좋겠습니다.

Q6 : 선배님께서 79년도에 졸업을 하셨는데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A6: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지금 신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운동장 아래로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뒤에 허름한 가건물로 동아리실이 있었죠. 나는 문예반을 했고, 문예반 옆에 미술반, 연극반 이렇게 세 개의 동아리실이 있었어요. 대학을 회상하러니 그 곳이 먼저 떠오르네요.

저는 관악 1세대예요. 간호학과 1학년은 관악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었죠. 다른 단과대학의 건물에 있는 강의실 하나에서 교양과정 수업을 들었는데 캠퍼스내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갈 곳이 딱히 없어서 좀 썰렁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즐겨 다녔던 동아리 문예반은 2학년부터 신입회원을 뽑았지만 문예반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가입했어요. 동아리 활동, 종강파티 등이 기억나네요. 4학년 때는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제가 사생대표를 해서 매월 생일파티에 떡 해서 나누어 먹던 것,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다른 기숙사에 초대받아 갔던 것도 생각나요. 어떻게 보면 간호대학의 추억은 대학로의 추억인 것 같아요.

Q7 : 간호대학 동문들과의 모임이나 연락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A7: 우리 동기들은 두 세 달에 한번씩 모입니다. 전에

Im Sook Bin Interview



제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을 즈음에는 동기들이 병원에 많이 있어 서울대학교병원이 동기모임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좀 한가해진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모여요. 저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어서 서울 모임은 자주 못 가고 대전 동문들끼리 모이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문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서 어딘가 외부 강의를 가면 그 쪽에 있는 동문들과 연락해서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Q8 : 단체의 대표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가지고 계신 신념이나 기조가 있으셨나요?

A8: 제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다 보니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맡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간호인으로서 제 역할이나 위치가 뭘까 고민하는 편이에요. 공부할 때에는 '결정적으로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이 내 전공이 아니라 속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간호의 주 개념인 caring이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간호인으로서 어떤 시작으로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을 돌볼 때 아픈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건강한 면을 보고 확장시키는데 간호의 모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호 자체로도 할 일이 많지만, 다른 여러 사람과 어울릴 때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 집니다. 사회는 더욱 더 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 다른 분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조화, 균형'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9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A9: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할 때가 기억에 남아요. 발

달장애아 주간치료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my patient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담당 환자가 따로 있어서 맘껏 계획하고 맘껏 중재하고 평가하고, 그 가족까지 간호를 할 수 있었고, 그 때 간호의 전문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이병원에 소아정신과 입원병동이 생기게 되면서 미국 연수를 가서 6개월간 인턴십 교육을 받고 와서 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체계를 세우며 일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매우 보람차고 재미있었어요. 천방지축 20명의 환아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전적인 과제였지만 간호사들이 기대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해주었고 협동이나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절감했어요. 85년도부터 92년까지 7년간의 경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했던 그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지금도 그때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과 만나면 반갑고 그래요.

Q10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10: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런 저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에 그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저는 학생일 때나, 간호사가 되어서 여러가지 행사의 사회를 많이 봤어요. 이 경험이 간호와는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 앞에 설 때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화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사회자의 컨트롤 능력과 유머 등도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경험에 대한 성찰(reflection)이 중요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조차 그 느낌에 충실하세요. 걸어갈 때면 차를 타고

가거나 달릴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지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에서 느끼는 느낌도 소중히 하고, 별스럽지 않은 광경조차도 유심히 보세요. 사소한 경험들이, 그 때의 자각이 살아가는데 유용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후배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후배들이 간호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호학에 입문했으니 간호 공부를 실컷 한 번 해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다른 분야와 접목할 수도 있으니 너무 멀리 다른 것만 찾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다 '어떻게' 하는 지가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 분야에 있는 곳에서 진정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간호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올곧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올곧게 자기 길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후배들이 '내 것'만 생각하기 보단 '이 사회에 내가 무엇을 다시 돌려 줄 수 있나'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 나와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유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대생들이 매사에 일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예민한 경향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질수도 있고, 졌을 때 그 경험을 성찰하면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 interviewer 10 이수현, 10 황진경

학생활동 01

학생활동 | 학부

학생활동 | 학부 01

제 21대 학생회 발족

10 장 명 석 (21대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학생회 회장 10학번 장명석입니다. 회장인 저는 20대 학생회 학술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부회장 유미옥은 20대 학생회의 문화부원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저희는 20대 학생회 회장 송수연(08), 부회장 최지민(09) 학우의 열정적인 사업들을 많이 도와줬었고 그런 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우들간의 끈끈한 정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



을 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20대 학생회가 너무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놓은 터라 그 중에서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업들을 계승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리고 10학번 이후부터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학우들이 조별 모임이나 그룹 스터디를 할 공간이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에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1대 학생회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수시 논술 안내, 정시 논술 안내 등의 입학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많은 활동을 이미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대학교 간호



대학에 대한 입학 의지를 더욱 깊게 하였고 여러 루트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학이 결정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도 수시 합격생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새내기 배움터 또한 25명이 새내기 준비위원회에 지원해서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구성, 연사 섭외 등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 스터디 그룹 지원, 합춘사 지하 자율학습실의 세미나실화 등등의 학업 관련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총MT, 종강파티, 합

춘사 밤샘 영화제 등의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진로캠프, 소규모 강연 등의 진로와 생활 정보에 관련된 사업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21대 학생회는 회장단 2명, 집행부 36명과 운영위원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대학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더 끈끈한 연대감을 길러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터라 많은 허점과 서툰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21대 학생회는 소통을 중시할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 이외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비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생활동 | 학부 02

2. 2011년 간호대학 진로캠프

09 한 새 미 (20대 학생회 2학기 학술부장)

작년에 이어 지난 2011년 11월 19-20일, 방화역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제 2회 간호대학 진로캠프가 열렸습니다. 다들 빠듯하고 바쁜 일정 속이었지만, 서울 외곽이 아닌 서울 내에서 열리게 되어서인지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진로캠프에서는 은우기(04졸) 선배님과 이선영(99졸) 선배님이 참석해 주셔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좋은 말씀으로 학생들의 궁금

증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은우기 선배님은 현재 삼성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으로, 임상 간호사로서 경험하셨던 일들과 에피소드를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이신 삼성병원에 대한 소개를 다른 대형 병원들과 비교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일하는 행정직 간호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평소 듣지 못하던 얘기라서 더더욱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 선배님은 제약회사에 일하고 계신 분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

생으로서 더 나은 인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제약회사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히 현재의 위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중한 위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라고 경험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으로 그 동안 간호를 배우고 실습하는 것에만 집중하던 학기 중에 소중한 말씀을 듣고 나의 진로에 대하여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전공수업과 실습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후배에게 조언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평소 선후배간의 교류가 적어서 전공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다 같이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힘든 점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선후배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간호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같이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생활동 | 학부 01

WHO 인턴 (사진 : WPRO)
역대 사무총장 앞에 선 저자

08 구보연

호기심이 관심을, 관심이 기회를 가져온다면요. 이종욱 글로벌 영 프런티어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너무 감사한 추억과 동기, 열정을 수확할 수 있었던 값진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학부 커리큘럼에서 '지역사회간호학' 과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을 이수한 저는 평소 국내보건에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국제보건은 항상 낯선 주제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의학도서관에 비치된 구 이종욱 박사의 연대기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막연한 존경심과 더불어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하기엔 그 규모가 상상범위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최의 '이종욱 글로벌 영 프런티어' 3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기회가 닿아 필리핀 마닐라 WPRO 본부에서 개최된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를 참관하고 돌아왔습니다. WPRO 지역총회는 각 회원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차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보건현황과 WHO 회원국으로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학생신분으로 참관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전체 3박 4일의 일정 중 정확히 양일 간 진행된 참관, 이 이들은 세계에 대한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에게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WHO 여성 사무총장 '마거릿 쉐의 국제보건에 대한 열정적인 연설을 직접 들으며 국제보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신영수 지역사무처장님과 특별한 대화와 WPRO 한국인 박사님과 특별한 시간 속에서 국제보건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의대 학생들과 WHO 한국인 인턴들과의 대화에서는 진정한 '열정' 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고, 제 마음 속에 새삼 피어나는 '열정' 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활동기를 읽으시는 후배님들께 감히 '열정이 있다면 실천하라, 세상은 항상 열려있다' 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생기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천해보곤 합니다. 이종욱 글로벌 영 프런티어도 의학도서관 인쇄실을 술하게 오가며 보았던 이종욱 박사의 모습에 의아함과 호기심을 갖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1년을 기다려 신청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마닐라로 떠났던 친구들은 대부분 교수님이나 선배, 지인의 권유로 신청한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대체 그 국제보건의 뭘?' 가 궁금했고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기에 도전하였습니다. 결과는 '환상적' 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WPRO 체험은 40년 후의 제 모습에 큰 이정표 역할을 하리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활동 | 학부 02

코이카의 꿈

07 김현진

"학생간호사, 남미 대륙을 누비다."

저는 지난 가을, MBC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함께 기획한 "코이카의 꿈"이라는 10부작 특별프로그램에 봉사단원으로 참여하여 약 보름정도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코이카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1991년에 생긴 국내 단체입니다. 보건의료분야는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와 HIV/AIDS 및 전염병 퇴치를 목표로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코이카의 사업 중 하나이며, 간호사는 그 사업인력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간호사의 저력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해오고 있습니다.

MBC "코이카의 꿈"에서는 코이카가 사업중인 국가 중 페루, 파라과이, 스리랑카, 세네갈, 에티오피아에 국가별로 다양한 직종의 봉사활동단원을 모집하였고, 저는 페루의 보건위생사업 봉사활동에 지원하여 8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 2011년 9월 중 2주간 해발 4,000미터에 위치한 페루 와라스 지역에 화장실 및 부엌환경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직종에서 선발된 20명의 일반봉사단원과 국립의료원에서 파견 나온 의료봉사단원, 그리고 영화배우 박보영씨, 한류스타 엠블랙, 가수 구준엽씨, MBC 오승훈 아나운서와 함께 매일 페루의 고산지대를 오르내리며 수세식 화장실 짓기와 부엌위생 개선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의료봉사팀원으로서, 현지 코이카 간호단원들과 이동진료 등의 의료봉사활동에 함께하였습니다. 고산지대의 뜨거운 햇살 속에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 없는 좁은 부엌에서 아궁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의 특성상 안과질환을 많이 가진 주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초 예방접종률이 낮고 성병예방시스템과 성교육체계가 부족한 현지의 열악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보건사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현지 코이카 간호단원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봉사팀은 해발 4,000미터 와라스 지역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는 모습을 보고, 현지에 상수도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방에 환기시설과 먼지가 나지 않는 구조의 아궁이를 설치함으로써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보름 남짓의 짧은 봉사활동이었지만, 봉사활동에서 내로라 할만한 사람들이 한데 모였기 때문인지 제법 단기간에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실습을 통해 만나는 임상에서의 간호사의 모습에서 느낀 개별간호의 특수성 못지않게,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간호과정에 근거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현지 코이카 간호사의 역량을 보며, 국경을 뛰어넘고 영역을 뛰어넘어 폭넓게 활동하는 간호사에 대한 멋진 인상을 가지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만이 간호사의 활동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에만 눈을 돌리기 전에 아직 매우 기초적인 보건환경마저 갖추지 못한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공부한다면 더 많은 지역과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있는 준비된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코이카의 꿈'은 2011년 11월에 방송을 시작하여 2012년 1월에 종영하였으며, 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학생활동 | 학부 03

1. 서울대학교 의대 간호대 연합 합창단
'SNUMNC' 후배사랑 장학금

의과대학 국명철, 최민호 동문과 간호대학 김두나(2010 졸), 안태사(1990 졸), 조미경 (1994 졸), 김기숙(1994 졸), 변남수(1988 졸) 동문이 합창단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간호대학 합창단 후배사랑 장학금은 2010년 김승태(의과대학 '98년 졸) 동문이 간호대학 합창단 후배 2명에게 장학금을 기탁한 것으로 시작되어, 간호대학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현재는 간호대학 동문들도 함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활동 | 학부 04

3. 동아리 탐방 - Exciting

저희 동아리 Exciting!은 레저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간호대학 선, 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볼링, 야구 관람, 당구 등을 함께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는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의 여름 레저스포츠를 즐기러 호수와 바다로 여행을 가고, 겨울방학에는 스노우보드, 스키, 스케이트, 썰매 등 겨울 스포츠를 함께 즐기러 갑니다. 그리

고 가을 연건 운동회 피구 대회를 대비하여 함께 피구 연습도 하고, 각자 개인 목표를 정하여 마라톤을 위한 연습과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대학 동기, 선, 후배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조 윤 정

학생활동 | 학부 05

4. 용인에서 열린 2012년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



2012년 2월 16~18일 2박3일에 걸쳐 경기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2012년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이하 새터)가 열렸습니다. 이번 새터에는 신입생 및 학부 재학생 약 130여명이 참석하였고, 학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시어 격려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새터에서는 새내기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

활에 적응하고 선후배간에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처음으로 반제도가 도입되어 반별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새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 과목별 교수님들과의 시간(성안: 서은영 교수님, 모성: 박영숙 교수님, 아동: 방정숙 학과장님, 정신: 김성재 부학장님, 지역: 이인숙 학장님, 정보: 박현애 교수님, 관리: 이남주 교수님)과 연사조정강연(서울대병원 NICU 조은주 수간호사님, 고진강 교수님)과 같이 앞으로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유익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화장법 강연, 대학 생활 안내, 연건캠퍼스 소개, 대학로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기, 대학로 공연소개, 병원 임상 실습 공개와 같이 대학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과 Ice breaking, 운동회, 런닝맨 in 간호대학과 같이 새내기들이 동기들과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이번 2012년 신입생 새내기 배움터는 새내기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오 승 현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1년 3월 1일~2012년 2월 29일

학사동문	김선호(1995)	방경숙(1985)	최명애(1970)	Peter Garvin	가정간호 재가노인요양센터
간호대학 7년 졸업생일동	김성재(1981)	엄영란(1980)	최재현(1975)	장애경	대한중양간호학회
간호대학 8년 졸업생일동	김영아(1988)	장선주(2002)	하양숙(1971)	기타	대한질적연구학회
간호대학 2012년 졸업생일동	박명숙(1993)	장숙량(1996)	익명의 기부자 1분	Peter Garvin	도박중독전문가 교육센터
김경옥(1954)	박연환(1991)	정현명(1992)	대학원	익명의 기부자 1분	중환자간호학회
김금순(1972)	박영숙(1969)	조동란(1970)	허성환 (허보윤 2011 박사졸 학부모)	서울의대간호대학합창단	대한중양간호학회

간호대학 발전기금 문의처: 02-740-8802

학생활동 02

학생활동 | 대학원

학생활동 | 대학원 01

1. 한국갤럽의 박사학위 논문상 우수상 수상

2010년도 우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선주(성인간호학)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갤럽의 박사학위 논문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통계와 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 및 조사 분야 전문학술단체인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조성경)는 2003년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후원 하에 우리나라에서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국갤럽학술논문상 (Gallup Korea Award)”과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 (Gallup Korea Dissertation Award)”를 제정하였다.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은 2003년 9월 18일 첫 번째 시상식을 가진 이래 올해로 아홉 번째 시상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상대상 학술논문은 사회과학 전반, 통

계학, 조사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응모/추천받아 19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회조사방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2011년도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수상작으로는 대상 1편과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다.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은 2004년 6월 19일 첫 번째 시상식을 가졌으며, 올해 여덟 번째 시상식을 맞아 4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공동으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장선주의 박사학위 논문제목은 “제2형 당뇨병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 이다.

참고: 한국갤럽 홈페이지(<http://www.gallup.co.kr/contactus/noticeContent.asp?seqNo=77>)

학생활동 | 대학원 01

2. 나의 유학생할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지도교수님을 찾아 뵈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첫 방문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찾아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던 지도교수님이신 김정은 교수님의 따뜻하고 넉넉한 미소가 늘 제 마음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학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날의 유학생활을 떠올려봅니다.

꿈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집을 떠나 외로움과 싸우면서 마음 한 구석이 늘 시렸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서울에 임상실습을 온 경험도 있고 한류에 익

숙하여 이곳의 생활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유학생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말이 어려웠고, 초기에는 대학원 수업방식도 낯설었고, 조교로 일하면서 배워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 다. 처음 수업 후 과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잘 극복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언제부턴가 유학생활에 적응해나가고 외롭고 힘든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울말도 곧 잘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마음가짐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이 어려움만은 아닌, 때로는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교수님들과 대학원 선생님들이 잘 이해해주시

고 따뜻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얼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저를 명문대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준 모든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 장학금과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학 동안 정말 근심걱정 없이 마음껏 배우고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서러울 때에도 지도교수님께서 친히 약까지 사주시고 마음 써주신걸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합니다. 저한테는 늘 존경스럽고 멋진 스승님이시고 또한 따뜻한 엄마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꿈을 갖고 유학을 왔다면 유학 동

간호정보학 석사과정 수료 이경순

안에는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워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꿈 가운데는 교수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과 높은 경지가 모티브가 되어 간호학에 더 매료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배움의 길과 현장에 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동거 동락한 유학생 친구들, 고맙고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해서 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도 기대하고 감사하겠습니다.

